

행복하고 넉넉한  
한가위 되세요.겨레말큰사전 제34호  
누리판

겨레말이 만난 사람 · 겨레말 편찬 연장 · 말에 얽힌 이야기 · 찾아가는 겨레말 · 겨레말 소식

## ■ 겨레말이 만난 사람

## 이준익 영화감독



사업회는 '93년 영화 '키드 캡' 데뷔 이후 지역감정이라는 현재성에 주목하여 백제와 신라의 전쟁을 접목시킨 '전쟁 사극'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준익 감독을 만났다. 영화 '평양성' 이후 환경운동 시민네트워크 ' (사)푸른아시아' 홍보대사로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준익 감독을 만나 영화뿐만 아니라 역사와 언어, 문화에 대한 그의 화수분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_ 인터뷰 진행 : 모순영 총무과장

우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준익 감독하면 천만 관객을 돌파한 '왕의 남자'를 비롯하여 '라디오 스타', '즐거운 인생', '님은 먼 곳에', '황산벌', '구르를 버서난 달처럼', '평양성' 등 많은 영화가 떠오르는데요. 특히 사극영화인 '황산벌', '평양성'에서 사투리를 소재로 삼아 영화적 재미를 배가시키셨는데요. 이처럼 사투리를 소재로 영화를 만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언어 속에는 영화 속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관이나 사회관, 자연관 등 이런 게 풍부하게 들어있죠. 사실 언어가 없어도 문화적 정체성 등이 없어지는 거죠. 언어 안에 세계관이 다 숨어있단 말이에요. 일례로 '거시기'라는 단어를 통한 언어의 소통의 오해와 이해, 이런 과정들을 영화 시나리오를 통해 반영을 했어요.



▲ 이준익 감독

실제로 영화에 전라도 고창 출신인 이문식씨를 캐스팅해서 시나리오에 없는 사투리의 디테일한 맛들을 살리는 의외의 성과를 얻기도 했죠. 사실 시나리오상에서는 '엄청 강한 옥'이라고 딱 한 줄 써있었는데 이문식씨가 옥을 개발하자고 현장에서 제안했죠. 이를 테면 "엄병할, 우린 밥을 먹어도 반찬이 40가지야. 이 씨버럴놈아"라고. 근데 재밌게도 그 얘기를 듣다보니 "밥을 먹어도 반찬이 40가지야라는 것이 정말 옥이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상대 비교가 치에서 내가 열세, 열등감이 된다면 내가 옥을 보는 거니까요. 경상도는 산밖에 없어요. 산이 악산이라 나물도 변변치 않아요. 소여물을 사람이 먹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린 반찬이 40가지라고 약을 올리면, 엄청난 옥이 된다는 거죠. 언어를 중심에 놓고 영화를 찍으면서도 비교가치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을 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예전 감독님이 한 인터뷰에서 "집단 차이는 집단의 풍습에서 나오고, 그것의 대표가 언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영화 속 '거시기'의 등장은 그 지역 언어, 즉 사투리를 통해 그 지역의 원형을 보여주고자 하는 감독의 의도라고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거시기'의 분포를 보면 같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에서 자란 표식이 있어요. 기호든 기표든 언어적 수단으로 그 "거시기가야, 그 거시기" 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듣는다고요. 경상도의 '가가 가가?'는 전라도의 '거시기가 그 거시기?'인 거죠.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듯 생활 속 가치, 생활문화 역사를 우리가 배우면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고 봐요. 인정하고 사이 좋게 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역어라고 말하는 전달 매개체로 해결이 되는 거죠. 실존적인 문화적 가치로 그 특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는 다 지배자의 후기 기록들입니다. 때문에 굉장히 폭력적인 역사관을 학습 받다 보니 계속 경제나 권력의 가치를 비교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는 거죠.

다시 영화 얘기로 들어가볼까요. 감독님과 함께 작업한 어느 배우가 한 인터뷰에서 "이준익 감독영화를 찍으면 놀이터에 가는 기분이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준익 사단처럼 특별히 선호하는 배우가 있는지요.

적어도 영화를 찍을 때만큼은 그 시대에서 자유롭게 놀자라는 생각에 배우들, 현장 스태프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찍죠. 그리고 전 사단이라는 말을 기본적으로 싫어해요. 왜냐하면 집단화라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나 집단 이기주의를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종종 마스크에서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난 그런 표현을 기본적으로 싫어하고 영화를 만들 때 형성하지도 않아요.

감독님 영화에는 유독 영웅이 없는데요. '라디오 스타', '님은 먼 곳에', '즐거운 인생' 등의 영화를 보면 주인공들을 굳이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삼류를 일류로 만들고 싶은 욕망도 없어 보이는데요. 이처럼 특별히 영웅을 만들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요?

개인적으로 저는 영웅을 제국주의의 소산물이라고 봐요. 좀 멀리 올라가 보면 결국 서구사회에서 영웅이라는 가치를 계속 재생산해냈다고 봅니다. 영웅의 가치가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영웅을 좋아하지 않아요. 평범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그를 통해 인생을 들여다보는 게 훨씬 내게 맞아요.



감독님은 '왕의 남자'가 은유의 미덕이라면 다른 영화는 직유의 미덕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는데요. 관객 입장에서 은유의 미덕으로 표현하는 게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직유로 접근했을 때는 뭔가 관객에게 끊임없이 설득하려고 드는 느낌이 들어 불편했는데요. 그렇다면 감독님이 정말 찍고 싶은 영화는 어떤 영화인지.

사극을 찍다보면 자주 직유화 돼요. 사극 자체가 이미 은유이기 때문에 보다 더 직접적인 주제를 전달해주고 싶은 쪽으로 쏠려서 저도 고통스럽습니다. 영화라는 것이 의미의 체계와 재미의 체계가 균형을 잘 잡았을 때 대중들이 즐기면서 그 의미도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인데, 찍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한 번 사용한 은유를 또 사용하진 않거든요. 그것은 자기포월에 가깝고, 심하게 말하면 창조적 능력이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하죠. 흥하던 망하던 보다 더 본질에 가깝게 영상을 구성하고 싶은 거죠. 과거 역사와 오늘의 현재성을 직렬방식으로 묻고 싶었어요. 그게 만드는 사람의 병이죠. 전 이미 그 중병에 걸린 상태라 사실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감독님은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힘, 스토리에 강한 감독이라는 평가를 받고 계신데요. 최근 몇 편의 영화에서는 어느 순간 이야기의 힘을 상실한 느낌이랄까? 관객에게 어떤 교훈을 의식적으로 던져주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직유를 보여주려다 보니 스토리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스토리가 강해졌다고 생각하는데, 대중들은 약해진 것 같다고 느끼는 모양입니다. 그게 괴리감이죠. 황산벌부터 기존의 사극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출발을 했고, 가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계속 가고 관객과는 오히려 더 멀어지더라고요. 그럼 갈아타야 하는데 못 갈아타고 있어요. 문학이나 미술은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영화는 스태프, 배우, 호감을 가졌던 관객까지 같이 가는 장르입니다. 혼자 갈 수가 없는 예술장르입니다. 바로 그게 최근 은퇴 발언을 한 이유예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손목을 잘라야 겨우 도박에서 손을 끊을 수 있잖아요. 것처럼 영화판에서 아무 타자가 되서 능숙하게 같은 패를 돌리고 있는 사람이 나라는 생각에, '오케이' 그래서 내 손목을 자르자. 이렇게 된 거죠. 다른 방식으로 영화에 가보자 뭐 이런 거죠.



감독님의 영화를 기다리는 관객 입장에서 다음 영화가 무척 기다려지는데요. 요즘 영화 생각은 안 하시는지?

한 6개월 안했다가, 다시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사극을 하지 말라고 말리네요. 일종의 병을 벗어나는 방법은 그 자리를 떠나는 거니까요. 다음 작품은 현대사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혹시 사극영화를 제작하신다면, 어떤 사극영화를 만들고 싶으신지요.

만약 사극을 한다면 고조선으로 가고 싶어요. 고조선을 좀 환타지적으로 풀어내고 싶은 거죠. 영화 '반지의 제왕'은 북유럽 신화에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절대반지라는 상징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 보다 더 오래된 신화의 시대고 고조선 시대입니다. 치우천왕 마스크는 지금도 기와에 여전히 남아 있죠. 것처럼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현대역사가 얼마나 옛날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옛 역사의 웅장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조선, 바이칼이나 만주의 넓은 공간으로 가고 싶은 거죠.

감독님 이야기를 듣다보면 언어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애정도 많으신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겨레말큰사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요. 다만 언어를 살린다는 가치는 우리네 삶의 본질을 살린다는 가치와 일치하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겨레말큰사전》의 그 노력을 전적으로 동감해요. 앞으로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할 때, 지금 현존하는 압록강 두만강 아래에서부터 출발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상태 고구려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서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점차 확장해서 봤으면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아무쪼록 반드시 성과를 내어 표준어사전을 능가하는 《겨레말큰사전》을 우리 민족 앞에 내놓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이준익 |

영화감독, 영화 제작자. 1993년 영화 '키드 캡'으로 데뷔하여 황산벌(2003), 왕의 남자(2005), 라디오 스타(2006), 즐거운 인생(2007), 님은 먼 곳에(2008), 평양성(2011)등을 제작하였다. 2006년 제3회 맥스무비 최고의 영화상 최고의 감독상, 제43회 대중상영회제 최우수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씨네월드 대표로 있다.



행복하고 넉넉한  
한가위 되세요.겨레말큰사전 제34호  
누리판

겨레말이 만난 사람 · 겨레말 편찬 현장 · 말에 얽힌 이야기 · 찾아가는 겨레말 · 겨레말 소식

## ■ 겨레말 편찬 현장

남북 사전 올림말 비교해 표기법과 의미 차이 분석하는  
《겨레말큰사전》 통합자료 정비 작업

\_ 김수현 / 겨레말큰사전 선임 연구원

분단 이후의 남북 언어를 이야기할 때마다 어휘의 이질화 문제는 늘 논의의 중심에서 있었다. 그러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이질화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과 해결 방안 모색은 늘 미뤄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통일 후의 언어 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휘의 이질화 문제를 다각도에서 진단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이질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 없이는 언어의 통합 역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간 남북 언어(어휘)는 표기법과 의미 차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대량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아직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겨레말큰사전》에서는 남북의 대표적인 사전인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을 비교하여 ‘어떤 어휘에서’,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는 통합자료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1. 조사 대상과 방법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의 올림말 수는 총 810,873개이다. 양쪽 사전 모두에 올라 있는 올림말은 215,124개, 《표준국어대사전》에만 올라 있는 올림말은 275,837개, 《조선말대사전》에만 올라 있는 올림말의 수는 80,636개이다. 같은 의미의 올림말을 하나로 묶었을 때의 전체 올림말 수는 총 571,597개가 되는데, 이 어휘가 실질적인 남북 어휘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 어휘의 차이 조사>는 이 571,597개의 올림말을 대상으로 한다.

2011년 《겨레말큰사전》에서 진행한 <남북 어휘의 차이 조사 및 통합 자료 정비>는 두 가지 목표를 두고 진행되었다. 첫째는 어문 규범의 차이로 인해 표기법이 달라진 어휘가 ‘얼마만큼’ 되는가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 작업은 어휘의 총목록을 검토해야 하므로 571,597개의 전체 올림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1차로 표기 차이와 관련된 어휘들을 전산으로 추출하고, 2차 작업에서는 이 어휘만을 대상으로 하여 표기 차이를 일일이 판별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을 거쳐 남북에 공통으로 있는 올림말, 남측 또는 북측에만 있는 올림말의 수를 각각 산출할 수 있었다. 또한 남북 어휘의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구축되어, 향후 남북이 표기 문제를 논의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자료 정비 작업의 둘째는 목표는 형태가 같은 어휘 중에서 의미 차이가 나타나는 어휘는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있다. 이 작업은 형태가 같은 어휘를 비교하는 것에 한정하고, 명사, 동사, 형용사 125,763개 쌍을 1차 작업 대상으로 삼아, 연구진이 직접 의미 차이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2. 차이가 나타난 남북의 올림말

## 2-1. 표기가 다른 올림말

## ① 사이시옷

- (1) 가계방[가계빵/가계땡], 뒷마당[뒤:마당](남) : 가계방[가계땡], 뒤마당[뒤마당](북)
- (2) 남측에만 있는 어휘 : 머릿줄[머리줄/머리쥬], 수수목[수수목]
- (3) 북측에만 있는 어휘 : 수수쥬[수수쥬], 지계단[지계땡]
- (4) 발음과 표기가 불일치하는 어휘 : 냉이국[냉이쥬/냉이쥬](남) : 냉이국[냉이국](북)

남측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규정을 계승하여 사이시옷 표기를 인정하고 있으나, 북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1)과 같이 발음에서는 사이시옷이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표기에서 차이를 보이는 어휘들이 많다. (2)와 (3)은 남측 또는 북측에만 있는 어휘들인데 이 역시 사이시옷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표기에서만 차이를 보인다. (4)는 사이시옷과 관련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는 어휘의 수는 비교 대상 올림말 571,597개 중에서 약 4,900개로 분석되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사이시옷 표기 차이가 나타나는 비율을 확인할 수 있어 남북 논의 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남북 공통으로 올라 있는 올림말, 남측 또는 북측에만 있는 올림말의 사이시옷 표기 및 발음 현황 역시 파악이 가능하며, 좀 더 객관적이고 정밀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을 듯하다.

## ② 두음법칙

- (1) 연세(年歲), 내일(來日) : 년세, 래일
- (2) 신여성(新女性), 비논리적(非論理的) : 신녀성, 비론리적
- (3) 나열(羅列), 비율(比率), 구름양(一量), 가십난(gossip欄) : 나렬, 비률, 구름량, 가십란
- (4) 녹두(綠豆), 나사(蠶絲), 유리(琉璃) : 녹두, 나사, 유리

(1)은 초성이 ‘ㄴ’, ‘ㄹ’인 한자음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 남측에서는 현실 발음을 존중하여 ‘ㅇ’, ‘ㄴ’으로 표기하고, 북측은 한자의 본음 그대로인 ‘ㄴ’, ‘ㄹ’로 표기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타남을 보여 준다. 이러한 유형은 약 20,000개로 분석되고 있다. (2)는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결합한 합성어의 뒷말이 ‘ㄴ’, ‘ㄹ’로 시작되는 한자음일 때에 표기가 달라지는 예를 보인 것인데, 약 2,600개가 발견되었다. (3)은 한자음 ‘렬’, ‘률’, ‘량’, ‘란’이 쓰인 어휘에서 차이를 보이는 어휘이다. 남측에서는,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오는 한자음 ‘렬’, ‘률’을 ‘열’, ‘율’로, 고유어나 외래어 뒤에 오는 ‘량’, ‘란’은 ‘양’, ‘란’으로 표기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북측에서는 이러한 조항 없이 한자의 본음 그대로를 밝혀 표기하므로 차이가 나타난다. 이 유형에 속하는 어휘는 약 1,300개이다. (4)는 북측이 예외적으로 현실 발음을 인정하여 두음법칙을 표기에 반영한 예로서 남북의 표기에는 차이가 없다. 이 유형에 속하는 어휘의 수는 약 1,200개이다.

두음법칙은 남측과 북측의 어문 규범에서 가장 뚜렷한 표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작업에서는 특히 기존 논의에서 미약하게 다루어졌던 남측과 북측의 두음법칙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올림말들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역시 북측과의 두음법칙 표기 단일화를 위한 합의에서 유용한 자료로 쓰일 수 있다.

## ③ 형태 표기

- (1) 낚시꾼(남) : 낚시군(북)
- (2) 폐해(弊害)(남) : 폐해(북)
- (3) 거매지다(남) : 거매지다(북)
- (4) 넓적코(남) : 넓적코(북)

형태 표기가 다른 어휘는 남북의 어문 규범이 달라 표기의 형태가 달라진 것을 말한다. (1)은 접사 <-꾼/-군>의 표기가 다른을, (2)는 한자음 <폐/폐>의 표기가 다른을, (3)은 활용 형태에서 모음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4)는 어근 <넓적-/넓적->의 표기가 다른 예이다. 이런 유형으로 남북의 올림말에서 형태 표기 차이가 나는 어휘는 약 7,900개이다. 《겨레말큰사전》에서는 형태 표기가 다른 어휘들을 단일 표기, 혹은 복수 표기로 합의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3)은 <거매지다>로, (4)는 <넓적코>로 합의된 올림말인데, 이와 같이 단일 표기로 합의된 올림말은 <붙임> 정보를 통해 합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 ④ 외래어

- (1) 필름(film[영]) : 필림(film[[영])
- (2) 나트륨(Natrium[독]) : 나트리움(Natrium[라])

남측은 주로 영어권의 원어를, 북측은 주로 러시아권의 원어를 차용하여 표기하고 있다. 원어가 들어온 과정이 다르므로 같은 뜻의 어휘라 하더라도 표기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에 올라 있는 외래어의 총 어휘 수는 41,877개인데, 《겨레말큰사전》에서는 이 중 인명, 지명, 표기가 같은 올림말을 제외한 목록을 대상으로 합의를 진행 중이다.

## ⑤ 피·사동 차이

- (1) 팔리다(남) : 팔리다, 팔리우다(북)
- (2) 맞잡히다(남) : 대응 올림말 없음(북)

남측은 피·사동과 관련한 문법 체계가 다르다. 피·사동과 관련하여 차이가 있는 어휘를 추출해 보니 총 324개의 어휘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1)에서 <팔다>의 피동형인 <팔리다>는 남측과 북측 모두에 있는 올림말이지만, 접사 <-리우->와 결합한 <팔리우다>는 북측에만 있는 피동형이다. 이는 남측에는 없는 표현이므로 남북의 언어 차이로 볼 수 있다. (2) 역시 <맞잡히다>는 남측에만 있는 <맞잡다>의 피동형으로 북측에는 없는 어휘이다.

## 2-2. 어휘의 의미 차이

남북 어휘 의미의 이질화 정도를 파악하여 그 간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남북의 언어통합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같은 형태의 어휘는 통일 후 남북 언중들의 의사소통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감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동일 형태의 어휘를 해석하는 ‘의미’가 다르다면 의사소통에서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남측과 북측 사람이 만났을 때 <일없다>라는 말을 서로의 사전적 의미로 해석해 난감해 했다는 일화 역시 이러한 문제의 축소판을 보여 준다. 《겨레말큰사전》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남북 어휘의 의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명사, 동사, 형용사 125,763개 어휘 쌍을 1차 대상 목록으로 선정하여 의미 차이를 살펴보았다.

## &lt;소행&gt;

《표준국어대사전》 이미 해 놓은 일이나 짓. Ⅱ {소행이} 껌썌하다. 어느 놈의 {소행이냐}.  
《조선말대사전》 해놓았거나 하는 일이나 행동. Ⅱ 훤바른 {소행}.

<소행>은 남측에서는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 반면 북측에서는 긍정적 의미로 쓰여 차이를 보인다. 이렇듯 1차 작업에서 의미 차이로 분석된 어휘의 수는 약 17,000개이며, 현재 작업 결과물을 정제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는 남북 어휘의 의미 이질화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로서, 남북 어휘 의미의 합의를 위해 쓰이게 된다.

이상으로 《겨레말큰사전》에서 진행하는 남북의 남북의 형태 표기 차이와 어휘의 의미 차이 조사 등 통합자료 정비 작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했다. 이 작업은 남북의 언어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기존 논의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왔던 남북의 언어 차이를 총체적으로 살펴 본 데에 의의가 있다.

아울러, 북측과의 논의 시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겨레말큰사전》편찬 작업의 효율적 진행에 기여한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하겠다.



행복하고 넉넉한  
한가위 되세요.

# 겨레말큰사전 제34호

누리판

겨레말이 만난 사람 · 겨레말 편찬 현장 · 말에 얽힌 이야기 · 찾아가는 겨레말 · 겨레말 소식

## ■ 말에 얽힌 이야기

### 강릉사투리, 마실 나가다

전혜숙 / 문학박사

‘아이구야 마이 속았소, 아주 폭 속았소.’

2018년 동계올림픽이 강원도 평창으로 확정된 후 심심찮게 듣게 된 말 중 하나가 이 말이 아닐까 한다. 동계올림픽 개최를 염원하면서 그간 공들인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가장 강릉적인 인사말이 바로 이 말이었다 싶다.

잘못 이해하면 다른 사람의 거짓됨에 넘어갔다는 뜻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말인데 이곳 강릉에서는 힘들거나 어려운 일을 한 사람에게 그 애씀을 인정한다는 뜻을 담아 서로 주고 받는다.

‘속다’는 표준어 ‘수고하다’와 같은 뜻이다. 보통 ‘속았다’로 쓰지만 ‘속었다’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많다. 이 말은 단순히 ‘수고’에 대한 인사가 아닌 어떤 무엇을 하면서 들인 공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는 마음이 함께 담겨있는 정(情)이 가득한 말이다.

이 말이 제주도에서도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보면 아주 오랜 적에는 여러 지역에 보편적으로 쓰였을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하나의 어휘만을 짚어 보더라도 강릉이 얼마나 오랫동안 옛 언어를 잘 간직하고 있는 곳인지 알고도 남음이 있다.

옛적, 그 이전의 언어를 살피게 하는 강릉말로 ‘지벌나다’를 하나 더 덧붙여 본다. 이 말은 몇 가지 상황에서 조금씩 다른 의미를 내포하는데 가장 보편적인 것은 ‘요란하다’라는 뜻이다. 시끄럽고 왁자지껄한 분위기를 표현할 때 주로 쓴다. ‘신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 이 또한 흥이 나서 시끌시끌한 분위기가 연출될 때 쓴다. 마지막으로 ‘넘쳐나다’라는 뜻이 있다. 이는 음식 같은 것을 지나치게 많이 장만하였을 때나 여러 가지 풍성하게 차려진 상차림에 대하여 ‘지벌나다’, 또는 ‘지벌이 팔씩 나다’라고 한다. 그러나 자세히 그 뜻을 음미하면 결국 이 셋은 모두 하나의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무엇인가가 일정한 한도를 넘어 요란하고, 신나고, 넘쳐나는, 흥분, 그 이상의 벗어남을 뜻하기 때문이다.

위에 언급된 ‘속았다’나 ‘지벌나다’는 그 어휘의 어원을 가늠하기 어려운 점이 아쉽다. 언제부터 쓰였던 말인지, 어느 지역에서 유입된 말인지조차도 설명하기 쉽잖다. 이런 말들이 강릉에서 지금도 그대로 쓰이고 있음을 보면, 강릉이야말로 역사적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언어의 보고(寶庫)라 할만하다.

강릉말의 유지(維持)와 변화를 지리적으로 살펴, 남으로는 경상도를, 북으로는 함경도, 그리고 경기도를 주변으로 하여 그 지역들과의 언어 교차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강릉은 삼척을 사이에 두고 경상도와 연결하고, 속초와 양양을 경계로 두고 함경도와 이어져 있다. 또한 평창과 정선을 앞세우고 경기도와 닿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강릉말이 이들 지역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일 수 없음은 자명하다 할 수 있다.

현재 강릉에서 쓰이고 있는 표준어 집적거리다에 대응되는 ‘당글다’만 하더라도 경상도에서도 쓰이고 있음이 그러하고, 맷돌을 이르는 ‘망’이 함경도에서 쓰임이 그러하다. 더하여 가위를 이르는 ‘가새’가 경기도 방언임은 너무도 잘 알려진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은 경상도와 함경도, 경기도 그리고 그 주변 지역들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난 강릉만의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어휘들이 여럿 사용된다. 새총을 이르는 ‘느르배기’가 그러하고 목말을 말하는 ‘동고리’가 그러하다. 속이 쓰릴 때 쓰는 말 ‘대롭다’ 역시 이 지역만의 언어가 아닌가 한다. 이 외에도 여러 어휘들이 주변의 세(勢)를 과감하게 물리치고 독자적인 언어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듯 강릉이, 강릉만이 가지는 독특한 언어적 특징을 간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주 간혹하게 답을 낸다면, 아마도 지리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익히 알고 있듯이 대관령과 태백산맥의 그 굽은 줄기가 사람들의 왕래를 쉽지 않게 했음은 분명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지역의 언어적 고립을 유지시켰을 것이다.

말(言)은 변한다. 시간을 따라 변하고, 사람을 따라서도 변한다. 지금 이 지면으로 마실 나온 ‘속았다’나 ‘지벌나다’도 어느 때엔가 그 모양이 변해 있을 수도 있겠구나.....생각해 본다.

#### | 전혜숙 |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문학박사학위 취득하고, 하노이국립외국어대 객원교수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강원도 동해안 방언의 사회언어학적 연구(2008년), 강릉방언사전(2009년, 2인 공편) 등이 있다.



행복하고 넉넉한  
한가위 되세요.

# 겨레말큰사전 제34호

누리판

겨레말이 만난 사람 · 겨레말 편찬 현장 · 말에 얽힌 이야기 · 찾아가는 겨레말 · 겨레말 소식

## ■ 찾아가는 겨레말

### 알타이 언어 보존을 위한 누리집 “언어다양성 보존 활용 센터”

유네스코가 2002년 2월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세계 6,000여 개의 언어 가운데 절반인 3,000여개 가량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한다. 국내 학계에서 이러한 절멸 위기에 처한 언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국알타이학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난 5월 <언어다양성 보존 활용 센터> 누리집(<http://www.cld-korea.org>)을 개통했다.

<언어다양성 보존 활용 센터>는 소수 사용자의 언어가 현재 얼마나 심각한 절멸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으며, 그 언어들을 보존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언어들의 다양한 모습을 쉽고 흥미롭게 소개하고, 언어들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기법과 그동안 축적된 결과 자료들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센터 개통을 주도한 서울대 언어학과 김주원 교수는 “언어다양성 보존 활용 센터는, 생물다양성이 지구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듯이, 언어다양성이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이 누리집은 중고등학생, 일반인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꾸며졌으며 다양한 사진 자료를 수록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한국 학자들이 현지 조사한 절멸 위기에 처한 알타이 언어들의 자료를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학자들도 더욱 활발하게 언어다양성 유지를 위한 활동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이 센터는 크게 ‘언어다양성’, ‘언어다양성의 위기’, ‘언어다양성의 보존’, ‘아카이브’로 분류하여 다양한 언어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일례로 알타이어족의 만주통구스어파의 한 언어인 ‘어원어’에서는 계절을 나타내는 단어가 사계절이 아니라 육계절로 표시됨을 알 수 있다. 봄을 이른 봄과 늦은봄, 가을을 이른 가을, 늦을 가을로 나눠서 부른다.

#### ■ 사계절이 아니라 육 계절이다

어원어인은 순록을 사육하는 것을 생업으로 한다. 이들은 생활의 대부분을 자연 속에서 지내므로 거기에 따라서 독특한 어휘가 발달되어 있다. 그 중에 하나로 어원어에서 계절을 나타내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사계절이 아니고 육 계절이다. 즉 봄을 둘로 나누어서 부르며, 가을도 둘로 나누어서 부른다.

nalka	이른 봄(푸른 잎이 나타나기 이전)
nægni	늦은 봄(푸른 잎이 나타난 이후)
jugani	여름
montalse	이른 가을(눈이 내리기 전)
bolani	늦은 가을(눈이 내린 이후)
tugani	겨울

#### ▲ 언어다양성 보존 활용센터 ‘어원어’의 흥미로운 어휘 소개

또한 ‘절멸 위기의 언어들’에서는 러시아 연방의 하바롭스크주에서 아무르강 하류에 사는 울치족들이 사용하는 ‘울치어’도 만나볼 수 있다. 울치어 사용자는 1987년 1,455명에서 러시아인과 결혼하는 혼혈과정을 거치면서 2002년에는 단 51명만 사용하는 절멸 위기의 언어가 되었다.

‘아카이브’는 한국알타이학회의 절멸 위기의 알타이어 연구(ASK REAL)의 결과물의 일부이다. 6년간 총 38개의 알타이어의 현지 조사를 수행하여 사라져가는 알타이어의 음성 영상 자료를 수집한 결과를 정리하여 동부 요구르어, 출름 튀르크어, 어원어, 니브흐어의 4개 언어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언어 자료는 검색과 어휘 부류별, 등급별 탐색이 가능하다.



▲ 울치어를 사용하는 울치족 사진

#### 다국어 검색

단어검색  검색

● 한국어 ● 영어 ● 러시아어 ● 중국어 ● 몽골어

Searching for "학교"...

- vc189: 경지/경제/문화  
조사언어 출름 튀르크어(2006)  
의미  
한국어(영어) 학교 (school)  
러시아어 школа  
몽골어 학교 (xue2 xiao4)  
몽골어 cyoryyn
- vc189: 경지/경제/문화  
조사언어 어원어(2005)  
의미  
한국어(영어) 학교 (school)  
러시아어 школа  
몽골어 학교 (xue2 xiao4)  
몽골어 cyoryyn
- vc189: 경지/경제/문화  
조사언어 동부 요구르어(2005)  
의미  
한국어(영어) 학교 (school)  
러시아어 школа  
몽골어 학교 (xue2 xiao4)  
몽골어 cyoryyn
- vc189: 경지/경제/문화  
조사언어 니브흐어(2010)  
의미  
한국어(영어) 학교 (school)  
러시아어 школа  
몽골어 학교 (xue2 xiao4)

#### 어휘 등급별 탐색

1급어휘 2급어휘 3급어휘 4급어휘

- vu001: 전문/지리  
조사언어 출름 튀르크어(2006)  
의미  
한국어(영어) 책(대장) (sun (n.))  
러시아어 книга  
몽골어 太阳 (tai4 yan2)  
몽골어 map
- vu001: 전문/지리  
조사언어 어원어(2005)  
의미  
한국어(영어) 책(대장) (sun (n.))  
러시아어 книга  
몽골어 太阳 (tai4 yan2)  
몽골어 map
- vu001: 전문/지리  
조사언어 어원어(2005)  
의미  
한국어(영어) 책(대장) (sun (n.))  
러시아어 книга  
몽골어 太阳 (tai4 yan2)  
몽골어 map
- vu001: 전문/지리  
조사언어 동부 요구르어(2005)  
의미  
한국어(영어) 책(대장) (sun (n.))  
러시아어 книга  
몽골어 太阳 (tai4 yan2)  
몽골어 map

누리집 각각의 항목 서술에는 그 출전을 밝히고,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사람을 위하여 관련 사이트를 표기하여 활용될 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언어다양성의 개념을 여러 언어의 예를 통하여 쉽게 이해할 수 되어 있다.



행복하고 넉넉한  
한가위 되세요.

# 겨레말큰사전 제34호 누리판

겨레말이 만난 사람 · 겨레말 편찬 현장 · 말에 얽힌 이야기 · 찾아가는 겨레말 · 겨레말 소식

## ■ 겨레말 소식

### 제53차 남측편찬위원회 회의 개최



사업회는 지난 8월 26일 제53차 남측편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업회 업무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팀별 사업 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 공동회의가 2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을 잘해 궁극적으로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행복하고 넉넉한  
한가위 되세요.

# 겨레말큰사전 제34호

누리판

겨레말이 만난 사람 · 겨레말 편찬 현장 · 말에 얽힌 이야기 · 찾아가는 겨레말 · 겨레말 소식

## ■ 겨레말 소식

### ‘남북학술문화협력사업의 현황과 추진방향’ 정책 토론회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 사례’ 발표

사업회는 지난 8월 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제3차 정책토론회에서 사례 발표를 하였다. “남북학술문화협력사업의 현황과 추진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김덕룡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명지대 윤덕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먼저 주제 발표를 맡은 전영선교수(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는 ‘남북 학술문화협력사업 현황과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문화 사업은 정치적 부침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 할 사업”이라며, “학술적 측면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특히 언어 분야를 대표적으로 꼽았다.

최호철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고려대 국문과 교수)은 2005년부터 추진되어 온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발표하면서, 남북학술 교류사업의 정기적인 추진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은 남북 언어의 이질화 해소와 사회 문화적 동질감을 회복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며, 향후 남북 및 해외 자료를 집대성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과 더불어 개성 만월대 발굴 사업, 북한 소장 고문헌 공동조사사업, 남북방송협력 사업에 대한 사례발표가 있었다.



행복하고 넉넉한  
한가위 되세요.

# 겨레말큰사전

제 34호

누리판

겨레말이 만난 사람 · 겨레말 편찬 현장 · 말에 얽힌 이야기 · 찾아가는 겨레말 · 겨레말 소식

## ■ 겨레말 소식

### 《겨레말큰사전》 집필 및 교열 연수회 열려

사업회는 올림말 집필 및 교열 진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2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집필 및 교열에 대한 연수회를 가졌다.

연수 첫날인 22일에는 《겨레말큰사전》 특징 소개를 시작으로 《겨레말큰사전》 형태표기와 <종합 집필요강>, <원고집필기>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25일에는 집필된 원고 속구조 항목(올림말 표기, 발음, 예문, 형태분석 등)과 띄어쓰기가 <종합집필 요강>과 맞는지 확인하는 '형식교열'에 대한 교육이 있었으며, 작업목록 제출 방법 등 교열 작업시 주의 사항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연수를 마쳤다.

이번 연수에 참가한 교열진은 사업회의 공개모집에 의해 선발된 용역연구원으로, 1차로 작성한 《겨레말큰사전》 집필 원고에 대한 교열 작업을 하게 된다.

